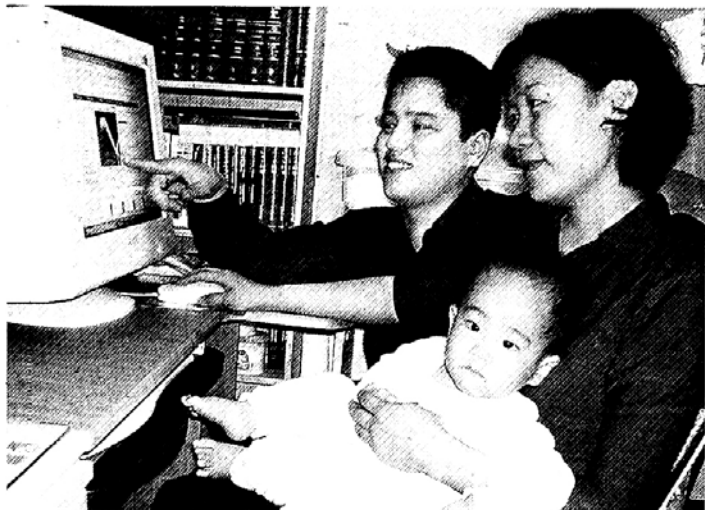


“우리 부부 신행 함께하는 도반”

PC통신 대화방 통해 만난 커플들



◁아이와 함께 동호회에 접속한 박찬주·김승일(왼쪽) 부부.

동호회 일 어려움 이야기 나누다 친해져 참선방 도우미 자청 초심자들 안내역도

〈잔취〉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잔취 : 합장
bud : 합장 투, 누나아님 형?
잔취 : 누나. 27일 서경법회 알지?
bud : 응, 누나도 형이랑 같이 올꺼지?
〈중략〉

“잔취”라는 아이디는 전 생명나눔실천회 박찬주(32) 홍보차장과 인화대 공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승일(32)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신상의 이름. 처음에는 각자 다른 아이디를 사용했으나

결혼후 하나의 아이디로 통일했다. 박찬주·김승일 부부는 이곳 부처님마을 대화방에서 97년 여름 ‘잔취’와 ‘새벽 노래’라는 아이디로 처음 만나 1년여의 연애 끝에 98년 백년가약을 맺었다. 박찬주씨는 “제가 서울경기지역모임 시상으로 활동하던 97년 남편과 주로 새벽에 동호회 운영의 어려움과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지금은 게시판, 대화방 등을 통한 온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번개모임, 정기법회, 수련회와 같은 오프라인모임에도 적극 동참해 신행

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상에서 신행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법우들은 주말이면 도반들과 가까운 사찰에서 성지순례 번개모임도 갖고, 정기법회에 아들 도우미를 데리고 오는 등 오프라인상에서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부럽기까지 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수일(42) 박선미(31) 부부도 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에서 ‘무추제’와 ‘kama53’이라는 아이디로 만나 2000년 12월 결혼한 커플. 이들 부부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부’라고 부르는 것보다 ‘도반’이라고 불러주길 바란다. 온라인 활동은 물론 오프라인 정기법회, 성지순례, 참선수행 등 신행과 수행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법시삽과 재무시삽으로 동호회 운영진 활동을 통해 처음 만난 두사람. 6년동안 부처님나라 참선방을 지켜온 남편 김수일씨는 지금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매주 수요일 서울 강남포교원에서 열리는 참선방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 얼마전부터는 참선방 게시판에서 온라인 도우미를 자청, 초심자들에게 훌륭한 참선 안내자 역할도 하고 있다. 부인 박선미씨도 매주 1회 서경대 물리학과 박영재 교수가 지도하는 선도회에서 참선을 배우고 있고,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참선을 하며 서로의 수행을 점검, 격려해주고 있다. 나우누리 부처님마을 정재평 대표시삽은 “처음에는 동호회내의 이상관계에 대해 편견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 반대”라며 “도반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다른 회원들에게 자극이 되고 있고 동호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nia.com

IT대신

SW결합은 제작사 책임 권대우 흥익대 교수 주장

11일 코엑스에서 열린 ‘지식정보 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법제의 정비방안’ 학술 세미나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7월 발효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흥익대 권대우 법대 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윤창범이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소프트웨어의 공급과 관련해 제작회사가 직접 책임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결합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규율하기보다는 제조사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부문 1위 능률협, ‘하나포스’ 선정

하나로통신(대표 신윤식)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하나포스(Hana FOS)가 한국능률협회에서 실시한 2002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부문 1위에 선정됐다. 한국능률협회의 조사 결과, 하나로통신의 하나포스가 KCSI 지수 42.7점을 얻어, 각각 37.3점과 37.2점을 받은 두루넷과 KT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치고 1위에 선정됐다.

게시판 열보기

어머님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는 불법에 귀의,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하며 사는 것을 더 원하셨던 같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도반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부부는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불교대학에 나가라고 권고합니다.

한미경, 능인선원원협담
솔직히 버스에서 내려서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입구에서부터 들리는 불경소리와 절에 들어섰을 때의 향 냄새, 그리고 불상들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수련회 끝나고 절을 나갈때의 처음엔 너무 좋은 곳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조금은 서글픈 마음도 들었는데, ‘천당과 지옥은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어느 스님의 말씀처럼 행 불행은 제가 마음먹기에 달린것 같아요.
이주희, 월경사이야기 나눔방

우리절 digital·cyber 불사

도선사

도선사가 15일 문을 연 ‘청담기념관’에는 스님이 생전에 사용한 주상자, 서화, 벼루, 붓, 손가방, 바느질 주머니, 낙관, 등종 등 유품 100여점이 80평의 전시관에 상설 전시된다. 스님이 직접 서각한 현판도 선 보인다. 스님의 행적이 일기형식으로 자세 히 기록된 56년부터 59년까지의 수첩도 직접 볼 수 있다. 이 가을 도선사는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 행사로 분주하다. 인터넷 도선사에도 그

받을 수 있다. 스님의 행장 코너 역시 이와 유사한 포맷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홈페이지는 사찰안내, 종무소, 사찰 둘러보기, 여성불교, 유물진, 청담스님, 생활불교, 계사판, 방명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7월 개편되어 새로 오픈한 홈페이지는 이전 홈페이지보다 디자인과 콘텐츠가 더 확충되어 볼거리가 많아졌다라는 평을 듣고 있다.

지역적으로 높아 위치한 도선사의 인터넷망은 지역 케이블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찰 중무 관련해서는 종무원들이 각각 컴퓨터를 운용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청담스님 코너 개설...기념사업 등 소개 홈페이지 7월 개편, 디자인·콘텐츠 확충

분주함이 엿보인다. 2000년 9월 오픈한 도선사 홈페이지에는 청담스님 코너가 개설돼 네티즌들의 스님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일조를 하고 있다. 청담스님 100주년 기념사업의 전모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님의 행장부터 불교정화사, 우리 스님은, 마음법문, 기사 모음, 기념사업 등의 코너로 나뉘어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특징.

“우리 스님” 코너는 스님의 일화를 중심으로 꾸준히 업데이트 되는 시봉일기 같은 내용이다. 잔잔한 감동과 스님의 일상적인 여러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신도들은 마치 생전의 청담스님을 뵈는 듯한 느낌을

지만, 전체적인 관리의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람지기를 들여와 일부분 응용해서 현재 사용 중이다. 도선사의 기존 처리 방식과 좀 다른 측면이 있어 전체적으로 전산화되는 시점은 몇년 후로 보고 있다.

사내 전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은화 과장은 “현재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신도카드도 DB화해 조직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외부에 개설되어있는 산하 어린이집 입장 카페를 도선사 홈페이지로 옮겨올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jg@buddhania.com



청담스님 인류구세 사상 인터넷 포교 원동력으로

주지 혜자스님

노인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받는 등 보시행을 인정받은 혜자스님은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을 인터넷으로도 널리 알리려 분주하다.

“인터넷은 새로운 포교 환경이기에 전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불교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담스님의 선사상에 바탕한 인류 구세사상이 조계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스님의 사상을 널리 알리려 인터넷 포교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스님의 포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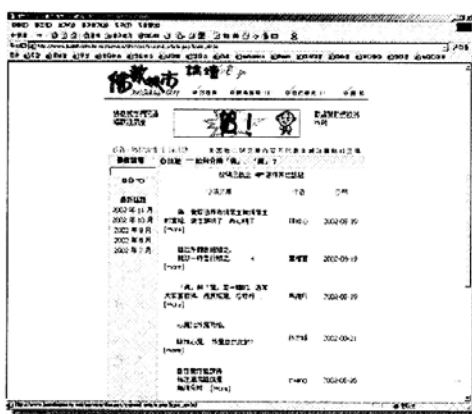
앞으로 도선사 내부 업무는 종단에서 추진하는 ‘가람지기’로 해결하도록 전환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끼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서울 종로구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평창동 45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부디즘시티닷컴의 디렉토리 서비스.

부디즘시티닷컴

대만의 재단법인 보타문교기금회에서 운영하는 부디즘시티닷컴(www.Buddhismcity.net).

다양한 대만 불교계 뉴스 매일 제공

보타문교기금회는 “21세기 e세대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교홍법의 방식 역시 인터넷화의 길을 걷고 있기에 사이

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부디즘시티닷컴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바로 매일 매일 전하는 일간 불교 뉴스 서비스이다. 각각 각종의 다양한 불교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의 활동, 화신 화제, 핫이슈 등을 전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부디즘시티닷컴의 서비스는 조직단체, 사원, 불교문물,

개인망, 경전서적, 의료자선기구, 전파매체신문출판, 소식, 교육, 문화예술,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불교신문, 불교논단, 각종활동, 인물특사, 선상불경, 선상불서 등으로 분류된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나-노 파동명상 요법을 알면 당신도 영혼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명상-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명상-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명상-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명상전생 특강 내용

- (1) 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靑度)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靈家)나 영의령(靈依)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2) 전생퇴행 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하는 기법
- (3) 원격 제령 명상 - 제 3자가 명상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 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수 있음.
- (4) 명상 파동요법 - 사람이나 영가는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영파(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파동기법으로 그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어 영가(靈體)를 불러내어 제령 천도하는 기법. 영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떠나 가는 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

강의 안내

◎ 개강 : 수시접수 ◎ 시간 : 매주 토요일 3시간, 3개월 과정 ◎ 특강 : 지역별 그룹특강 가능 (일주일 과정)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법운 선생님 약력
2001년 SBS '호기심 천국' -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출연
2002년 KBS 'VJ특공대' - '최면의 세계' 출연
동래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졸업
세계 아미포 기공협회 회장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연 '삼경그룹' 교원으로 재직

동방명상전생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